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등록규제 80% 수준으로 줄인다

2016년까지…일몰제 확대 '비용 총량제' 시행

박근혜 정부가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2200개를 줄여 전체 규제량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전체 참석자 규모는 150명을 넘어섰다.

이날 회의는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애로점 등을 설명하면 박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 규제개혁은 한국 살리는 조치"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외국계 전문기관 맥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경제 관련 규제 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에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아라"고 지적했다.

◆부처별 추진실적 연말 공개

국무조정실은 현재 1만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 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 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후 규제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 시 '비용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포괄 심사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24일 집단휴진 유보

투표결과, 62%가 파업 반대

24일로 예정된 의료계 전면 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된 회원 투표 결과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 가운데 4만1226명(59%)이 참여했으며 그중 2만5628명(62.16%)이 집단 휴진 반대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염려하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 결과는 파업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정부가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정책을 추진하면 의사들은 언제든지 사명을 다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잠정 합의했다.

/황재용기자

'온돌 종주국' 부족함이 없다

기자 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 난방 방법'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온돌'을 이같이 정의한다. 세계적으로 온돌은 한국의 고유 난방 기술이자 주거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온돌을 세계 곳곳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중국이 온돌이 왜 한국의 고유 문화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북부지역에서 사용하는 난방 기술인 '캉(炕)·구들 황' 을 내세우며 온돌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식 온돌인 캉은 중국 북방의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온돌이 바닥 전부를 데우는 반면 캉은 실내 한쪽에 벽돌을 쌓아 일부분만 데운다. 베이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다수는 방열기(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중앙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신축 건물 중 열 효율 등을 이유로 바닥 난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 국한된다.

온돌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 북부 및 중국 동북부에서 이용된 난방 방식이다. 한국에서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우던 구식에서 가름·가스보일러 형태의 신식으로 형태는 변했지만 '방바닥 난방'의 기본 명맥은 전 국민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수천 년간 이어지며 한국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온돌. 한국이 '온돌 종주국'을 자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다.

냉랭한 여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강창희(가운데) 국회의장, 새누리당 최경환(오른쪽)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왼쪽) 원내대표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산단 내 공장연결 등 기업 요청 101건

중소·벤처기업 육성 막는 28건도 보고

삼성전자는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장(LED 전후 공정)이 분리돼 공장 간 물류운송 및 추가 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삼성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가지 법령(벽)에 막혀 해결이 쉽지 않았다. 우선 도시공원에 궤도 및 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공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가 필요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봐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국토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기업시설(물류 운송용 궤도)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했다.

국토부도 유권 해석을 통해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접 부분에서의 공동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연접 부분 내 7조원가량의 투자 확대와 8000여 명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기업이 요청한 101건의 각종 규제 개선 방안과 벤처·창업 관련 규제 방안 등이 보고됐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1933건의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해 이번 개선과제 101건을 포함 838건을 해결했다.

이번에 보고된 규제 개선 내용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이용 식품 판매 허용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42건과 ▲가맹점 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수출용 목재 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등 59건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는 법령이 불분명해 일선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건의해도 조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더욱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행 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한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하는 등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막는 각종 규제 개혁 방안 28건도 보고됐다. 우선 창업단계의 규제 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 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또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보건·의료, 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위풍 규정도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도록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포함됐다. 이 밖에 창업 기업이 최초 공장설립뿐 아니라,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 단계에서는 인수·합병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 기업이 은행 연체 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어도 정부로부터 재가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김학균기자 kcg1@metroseoul.co.kr

피켓 든 민주당 광역의원들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준비위원장이 2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일부가 6·15 선언 등의 내용이 정강정책 초안에 빠진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기 잔해추정 물체 포착됐다"

애벗 호주 총리 의회서 밝혀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 화면에 포착됐다고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20일 밝혔다.

애벗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호주 공군 소속 오리온 수색기가 이 물체를 찾고자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해상안전청(AMSA)이 실종기 수색과 연관된 물체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위성사진을 분석해 2개의 물체를 식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벗 총리는 "실종기 관련 물체를 찾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견한 물체가 실종기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리온 정찰기는 물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20일(현지시간)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공군 항공기 3대도 현장에 파견돼 추가 수색작업을 벌인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물체가 발견된 지점은 인도양 남쪽 바다로 추정된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이 실종된 말레이시아 MH370 항공기 사건 수사에 합류했다. FBI는 실종기의 자하리 아흐마드 샤(53) 기장 자택에서 압수한 모의 비행장치(비행 시뮬레이터)의 삭제 자료를 복원·분석하는 작업을 말레이 정부로부터 의뢰받았다. /조선미기자

'손톱 밑 가시' 민원 석달 내 소명한다

<1면에서 계속>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다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 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 "복합 규제 가장 큰 문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복합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생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동네 피자점은 배달이 되는데 떡가게는 떡배달이 안 된다는 점, 기초 상비약의 슈퍼 판매가 성공적이었다는 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설치는 한류 상품의 온라인 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품 인증을 받는 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중복 인증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가표준(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귀농·귀촌 해마다 꾸준히 는다

지난해 3만2000가구 전년비 20%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2012년보다 20% 가량 증가한 3만2424가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0년 4067가구로 늘었으며 2011년에는 1만503가구, 2012년 2만7008가구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전원 생활을 통한 가치 추구 확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50대 귀농·귀촌 가구가 1만4320가구로 가장 많았으나 40대 이하 귀농·귀촌도 1만2318가구를 차지했다.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647가구에서 2010년 1841가구로 늘었으며 2011년 4416가구, 2012년 1만7329가구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도시민 유치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6차 산업(1·2·3차 산업이 융합된 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6차 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산업인턴제의 인원을 확대하고 현재 39세 미만인 연령 제한을 49세로 완화하고, 전국 158개 도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종로 '무계원' 개원 서울 종로구가 20일 도후 [illegible] 문화공간 '무계원' 개원 행사를 열었다. 무계원은 폐쇄 위기의 서울시 등록 음식점 1호 '오진암'을 이축해 복원한 한옥이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질주 사고 2명 숨져

석촌호수 사거리…17명 중경상

서울 송파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시내버스가 차량과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두 차례 사고를 내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3분께 송파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60)씨가 몰던 3318번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버스는 추돌 후에도 노선을 벗어나 송파구청 쪽으로 우회전해 6차선 중 4차선을 따라 1.2㎞가량 주행을 계속했다.

버스는 오후 11시46분께 신천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5차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 2대와 벤츠 등 차량 5대와 연속 충돌하면서 4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30-1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318번 버스 운전기사 염씨와 30-1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20)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30-1 버스기사 김모(41)씨와 승객 등 모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세계 물의 날(22일)을 앞둔 20일 서울 청계천에서 해외 빈곤 국가의 물 부족 현실을 알리기 위해 더러운 물을 들고 있는 아프리카 가나 어린이의 사진 뒤로 어린이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고도지구 높이만 규제한다

서울시가 38년째 유지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를 다음달부터 폐지하고 높이로만 관리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곳(89.63㎢)으로 북한산, 남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이다.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변경된다. 남산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 7층·23m 이하에서 23m 이하, 7~9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바뀐다.

이로써 대지 규모와 용도 지역에 따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진기자

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지켰다

서울시 강력 행정처분 이후

서울 시내 법인 택시회사 255곳 중 253곳(99.2%)이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일 "지난해 기사 월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요금 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39.2%)에 그쳤다"며 "지난 1월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하고, 익명 신고 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일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교대 시 연료는 하루 35ℓ 지급하고 남은 연료는 환급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40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사납금 인상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상한 월급에 별도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 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 자체 점검을 실시해 총 17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현준기자 mkm@

새누리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무료"

새누리당이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모든 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6·4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새누리당은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겠다"며 "지난 2월 '국민행복드림본부'를 구성하고 첫 공약으로 '가족행복 2014 1호 어르신 섬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며 "보건소에서만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하고 있다. 동네 병원 어디서나 편하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치매예방 및 재활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예방 재활센터'를 4년간 200여 곳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작곡가 바흐 출생

1685년 3월 21일 프리드리히 헨델과 함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태어났다.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낳은 명문 음악가 집안 출신의 바흐는 자신의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생애를 바쳤다. 18세 때부터 오르가니스트로 명성을 얻은 그는 200여 곡의 성가곡을 비롯한 종교 음악과 수많은 기악곡을 남겨 '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춘래불사춘… 대관령에 또 눈 20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대관령 일원에는 많은 눈이 내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설경이 장관이다. 춘분 절기인 21일은 하늘은 맑겠지만 내륙지역은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연합뉴스

MB소유 건물 임차인 소송서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 명도로 지난해 8월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약 만료로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해 건물을 돌려줬지만 중축비 중 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조현정기자 jhj@

자녀교육 멘토 뛰어넘기 교실

서울시 구로구는 관내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교육 멘토 뛰어넘기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지막 수업은 금요일) 총 6회 강좌로 진행된다.

이상화 동대문구청 방문 인사

서울시 동대문구는 20일 지난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제22회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한 이상화·주형준 선수가 19일 동대문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선수는 구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개나리 피는 초안산 오세요"

서울시 도봉구가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초안산을 적극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의 개나리 개화 시기로 예상되고 있는 25일 전후에는 초안산 숲길 일대가 개나리로 뒤덮인 노란 꽃길이 될 전망이다.

방통대 황농문교수 특강

한국방송통신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지역 대학 대강당에서 몰입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황농문 교수를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방송대생은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폐장 공사도 '뇌물 커넥션'

원자력공단·시공사 등 5억원 규모… 전 경주시장도 수뢰

원전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공사에서도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시공사·하도급 업체 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방폐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 상무를 구속했다.

또 대우건설 전 상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민모(64) 전 이사장 등 원자력공단 임원 3명과 민 전 이사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백상승 전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들을 포함해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상무는 하도급 업체 7개사로부터 명절 떡값,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받은 뒤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임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자력공단 이모(59) 센터장은 전 상무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민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 전 상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백상승 시장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비 2548억→6080억 '뻥튀기'

방폐장 공사비는 애초 2548억원이었으나 5회에 걸친 설계 변경 탓에 2배가 넘는 608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승목 광역수사대장은 "발주처 임직원들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로부터 향응 대접은 물론 술값을 대납하게 하거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 불감증이 매우 심각했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kahn@metroseoul.co.kr

입체영상으로 보는 지구 세계 기상의 날(23일)을 앞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에서 열린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 기상의 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입체영상 지구본을 보며 기상기후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장기전세주택 입주 쉽게

서울시 공급규칙 바꿔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동일 순위 시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 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 자격 요건에 입주자 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동일 ▲규모별 건설 비율 내부 방침→고시로 변경 ▲만 65세 이상(정년 연령) 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 순위 때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가 유리하게 된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 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 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동일 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개정안은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김민준기자 mkim@

국정원녀 감금의혹 기소 곧 결정

검찰이 19대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 김현 의원은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킨 이유가 뭔지,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소환 대상 민주당 의원 4명 중 문병호 의원이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했다.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종걸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달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yjh@

metro Russia

Москвичам по
«оживший Кр

metro Brazil

oescavadeira
ada para
ar mercado

굴착기로 슈퍼 뚫고 금고 털어

브라질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들은 자르징캄펠라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근처의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슈퍼마켓의 외벽을 뚫고 금고를 털었다. 범인들은 금고를 손에 넣은 후 곧 바로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또한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etro HongKong

水族賊盜70龜

애완용 거북이 70마리 도난

19일 홍콩 콰이충 지역 거리에 있는 물고기 점포 두 곳에서 애완용 거북이 70마리를 도난당했다. 도둑맞은 거북이의 가격은 총 55만 홍콩달러(약 76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오전 11시께 가게 문을 열던 직원은 셔터가 열려있고 거북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된 거북이 중 가장 비싼 거북은 몸 전장 길이가 41cm에 달하는 알다브라코끼리거북 한 쌍이다. 가격 한 쌍의 가격은 약 10만 홍콩달러(약 1400만원)다.

metro France

sse derriere les barreaux

대학생 2명이 수감자에 과외

수학·영어 가르쳐

프랑스 툴루즈에서 대학생 두 명이 감옥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과외 활동을 해 주목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26세 대학생 로랑 마비유는 지역 교도소를 방문한다.

약 1시간30분간 4~5명의 수감자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그는 "이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수학을 가르쳐주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내 수업이 끝나면 수감자들이 나에게 수업을 제공한다. 이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영화에 대해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로랑은 대학생 봉사 동아리 제네피(Genepi) 소속으로 6년째 교도소를 찾아가 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20세인 다미엥(Damien) 역시 과외 활동을 위해 교도소를 찾았다. 그는 "두 달 전 감옥 사진을 보고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수업하는 과목은 영어로 내용은 고등학교 수준이다"고 밝혔다. 현재 툴루즈의 감옥에선 수감자 50여 명이 제네피 동아리 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수감자 20%는 문맹

로랑은 수감자들의 환경에 대해 "이들은 수업을 통해 감옥에서 감시 및 폭력을 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는 것을 보호한다.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사람들이 교도소에 관해 갖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도소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이들이 출감한 이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덧붙였다. /엘린 타막 기자

정리=김주리 인턴기자

"하나된 크림의 모든 것 보여준다"

모스크바서 반도 배경·주제로 전시회 개최

최근 러시아와 크림반도 간 합병 조약 체결 이후 크림의 러시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를 배경으로, 또는 크림을 주제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 전시회 '부활한 크림, 영감을 준 크림'이 개최돼 화제다.

전시회 주최자인 안드레이 그로즈네즈키는 이번 전시회의 목적을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크림반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크림반도가 안톤 체호프, 표도르 샬라핀, 콘스탄틴 코로빈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크림반도와 관련된 여러 미술 작품과 소설,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크림반도와 관련된 예술 작품 이외에도 역사적 안목에 관한 정보와 시대별로 정리한 크림반도 사진도 함께 전시됐다. 특히 역사의 한 장면을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인체 작품'이 인기가 높다. 인체 작품으로는 크림반도 병합을 선언해 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장에 힘썼던 여제 예카테리나 2세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의 풍경을 그렸던 이반 아이바조프스키, 바흐치사라이의 샘을 낭독했던 대문호 알렉산데르 푸슈킨 등이 있다.

그로즈네즈키는 "크림반도의 얄타 지역은 사람의 일탈에 집을 짓고 살았던 체호프의 소설에는 크림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대표적이기에 이 소설을 인체 작품으로 연출했다"고 말했다.

시를 낭독하는 푸슈킨의 모습을 재현한 드미트리 클리모프는 "이번 전시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목적에서 개최된 것"이라며 "크림 지역 주민과 러시아 국민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림을 직접 방문하고 축제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며 좋겠다"며 "크림이 앞으로 탄생할 제2, 제3의 체호프에게 엄청난 창작 영감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코스닥
1919.52 (-18.96)	541.79 (-0.41)

금리	환율
2.87 (+0.04)	1075.70 (+6.20)

뉴스 & 뉴스

KB은행 주택채권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기금 수탁 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 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 업무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옥기자

현대차 '쏘나타 모터쇼' 개최

● 현대자동차가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B2홀에서 쏘나타 브랜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쏘나타 모터쇼'를 개최한다.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단일차종 브랜드 전시회인 쏘나타 모터쇼는 7세대 쏘나타의 출시를 맞아 역대 쏘나타를 전시함으로써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쏘나타의 빛나는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정영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13-2100
독자센터 (02)721-9821

주요 건설사 신입사원 채용 문 활짝

현대·삼성·GS 등 주요 건설사들이 상반기 인재 모집에 나섰다.

20일 건설 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www.hdec.co.kr)은 24일까지 연구 개발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2014년 8월 정규 대학원 졸업예정자(2013년 8월, 2014년 2월 졸업자 지원 가능), 분야별 관련 학과 전공자로 대학 전 학년 평점 B학점 이상인자, 영어 성적 우수자 등이다. GS건설(www.gsconst.co.kr)도 상반기 신입사원 및 전역(예정) 장교 공채를 27일까지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플랜트 사업·플랜트·발전설계 등이다. 삼성물산·건설(www.secc.co.kr) 역시 3급 신입사원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밖에 대방건설(www.dbcons.co.kr)은 28일, 아이에스동서(www.isdongseo.co.kr)는 30일, 금호건설(www.kumhoenc.com)은 다음달 3일까지 인재를 뽑는다. /김민준기자 kmisu@

연준 100억 달러 추가 돈줄 죈다

옐런 의장 첫 FOMC 결정
美양적완화 10월 종료 땐
한은 연내 금리인상할 듯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양적완화가 오는 10월께 막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결정했다. 이로써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는 당초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지난해 12월)→650억 달러(올해 1월)→550억 달러(3월)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기 상황은 노동시장의 추가 개선을 기대할 정도로 충분하게 강하다"고 진단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의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준이 이런 속도로 100억달러씩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오는 10월이면 양적완화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8차례 열리는 FOMC회의 일정상 오는 4·6·7·9월 회의에서 100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10월에는 50억달러가 남는다.

연준의 출구전략은 ①양적완화 단계 축소 ②양적완화 중단 ③기준금리 인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양적완화가 오는 10월에 막을 내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옐런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아마도 양적완화가 끝난 이후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불투명했지만 테이퍼링 종료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명확해진 만큼 한국은행이 올해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이미 예상됐던 일로 결정 직후 미국 증시나 금리, 원화 역외선물환(NDF) 환율 등 시장 지표도 정부의 예상 범위에 있었다"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코웨이 텀블러 무료 나눔 행사 20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모델들이 코웨이 텀블러 나눔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코웨이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루 8잔'을 마시기 습관 캠페인을 돕기 위해 광화문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코웨이 텀블러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중소형·남향 아파트만 '분양 봄날'

중대형 외관 거품 빠지고
부동산 실수요 위주 재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 남향 위주 등의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만 수혜를 받고 있다. 집값 하락기를 거치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대형의 화려한 외관 특화와 같은 거품이 빠지는 것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소형, 남향 위주를 강조하는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으나 잔략 경망을 부란 보기 좋은 아파트에서 실속형의 살기 편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중대형 못지않은 중소형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비싼 돈을 들여 큰 집을 살 필요도 없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을 갖춘 아파트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건설사들도 실속형 아파트 공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우건설은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서 분양하는 '충주 2차 푸르지오' 825가구 모두를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했다. 또 남향 위주의 유기적인 단지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을 SK건설이 재건축하는 꿈의숲 SK 뷰는 정남향을 포함해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세대 내 채광 통풍을 신경 쓴 것과 동시에, 단지 바로 앞 우이천 조망도 극대화했다. 전체 504가구 모두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고, 이 중 28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선화기자

박스권 장세 속 '중박' ELS 관심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좇는 주가연계증권(ELS)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지수가 어느 정도 변하면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ELS의 장점과 향후 대형주 주가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업계 처음으로 코스피200 레버리지 지수를 따르는 동부레와플러스 ELS 제1319회를 선보여 지난 17일 총 4억6300만원 규모로 발행했다.

레버리지는 강세장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 장세에서는 손실폭이 그만큼 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형 ELS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고위험 종목형 ELS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풀이됐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총 148개, 4061억원어치 발행됐다. 코스피200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 200개를 중심으로 만든 주가지수다. /윤현주기자 h1um1@

'달리지 못한' 자전거보험

MB의 포퓰리즘 금융상품… 4년간 4억어치 팔고 8억 손해

과거 MB정권 시절 대표적인 포퓰리즘 금융 상품의 하나로 꼽히는 자전거보험의 성적표가 예상대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을 판매했던 대부분 손보사들이 미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는 이미 판매를 중단했고 2개 회사는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보험은 보험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붐을 타고 만들어진 전시성 상품의 성격이 강했다.

이 상품은 지난 2009년 이후 저조했던 단체 보험 위주로 상품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보험, 공공자전거보험, 자전거전용상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자전거보험을 보유했던 회사는 흥국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이다.

이들 중 LIG손보는 판매를 중단했고 흥국화재, 롯데손보의 경우 아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회사들도 실적은 미미한 상태로 의미 없는 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4년 동안 자전거보험의 판매 수익수는 단 4억1522만원에 그쳤고 손해액은 두 배가 넘는 8억3891만원을 기록, 손해율 202%를 나타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상품인 셈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보험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따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이나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산재보험처럼 법률상의 가입 강제를 통해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자전거보험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보험사의 인수 기피와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 부족으로 자발적 시장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포퓰리즘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4대악 보험, 피싱 손해보험 같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보험은 시장적으로 비용만 늘리는 비효율적인 상품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석장환기자 psj@metroseoul.co.kr

잠수안경 닮은 안구건조 치료기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월드기전브랜드쇼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안구건조증 치료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10원 동전·신문지로 청소

전순이 주부 경제학

드디어 따스한 봄이 왔다. 봄날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대청소'다. 이번 주말엔 온 가족이 집 안 곳곳의 묵은 먼지를 청소하며 새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 청소만 잘해도 집 안 분위기를 한결 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알뜰하고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일단 청소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먼지가 자주 쌓이는 TV나 테이블을 청소할 땐 물 8 대 섬유유연제 2 의 비율로 섞어 분무기 등을 이용해 뿌려주고,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먼지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가전제품을 닦을 때는 걸레에 먼지 뿌린 뒤에 닦아야 한다.

주방 역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싱크대 음에는 쓰다 남은 무를 이용해 싱크대 주변 곳곳을 문질러 주고나서 행주로 닦아주면 된다.

또 싱크대의 오물 거름통을 꺼내보면 항상 음식 찌꺼기가 엉겨붙어 있어 보기에 언짢다. 이럴 땐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면 된다. 못 쓰는 스타킹에 10원짜리 동전 4~5개를 넣어 거름통 안에 매달아두면 신기하게도 음식찌꺼기가 덜 생긴다. 10원짜리 동전에는 박테리아를 분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전이 검어질 때마다 새것으로 갈아주면 되는데 대체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면 된다.

현관 바닥은 큰 먼지를 비로 쓸어낸 다음 세제 푼 물에 신문지를 적셔 타일 위에 깔아뒀다가 솔로 문지르듯 쓸어낸다. 물론 신문지를 잘게 찢어 뿌린 후 쓸어내는 방법도 있다. 깨끗한 물을 여러 번 뿌려 마무리한 다음 마른 걸레나 종이 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베란다 바닥은 더러운 부분에 호스로 물을 뿌린 다음 세제 묻힌 솔로 닦아낸다. 마른 걸레나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면 더욱 말끔해진다.

/김민혜기자 minyel

주택 사업계획승인 기준 50세대로 완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로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됐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 건설 기준과 주택 공급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은 지난 2008년 9월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이탈리아 미녀도 반한 'G 플렉스' LG이노페스트 2014'에서 홍보도우미들이 'G 플렉스'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는 16~20일(현지시간) 일주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LG이노페스트 2014'를 개최하고 유럽 지역 신제품 및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LG전자 제공

2월 '신학기 이사' 전월세 거래 40% 급증

전국 14만2292건… 전년비 6.2% 늘어

신학기 수요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전국적으로 14만2292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6.2% 늘었고 1월보다는 42.2%나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2~3월은 신학기 학군 수요의 영향으로 전월세 계약이 빈번한 시기로 매년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해왔다. 이에 반해 전년 동월비 6.2%가 늘어난 데는 월세 거래의 증가(15.4%)에 기인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는 0.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9만3128건이 거래돼 전달보다는 46.9%, 전년보다는 5.3% 늘었다. 이 중 서울이 4만5436건으로 작년보다 3.9%, 강남 3구가 8917건으로 1.1% 증가했다.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4만7580건이 거래됐다. 전년 동기에 견줘 8.0% 거래량이 뛰었다.

거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1월 3억2000만~4억원까지 거래됐지만 2월에는 3억2000만~3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적었다. 또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84㎡는 4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외 노원구 중계동 그린1단지 49㎡가 1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산본신도시 세종아파트 49㎡가 1억8000만~1억8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 85㎡가 3억500만원에서 2억6000만~2억9600만원으로 전세가가 낮아졌다.

/이산회기자 pa@

디스플레이

반도체·DP 2030억 투자

정부 '세계 1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로

정부가 올해 세계 1위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203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시스템반도체 국산화 등 7대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분야의 낮은 경쟁력을 조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장비·소재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682억원, 전체 34%)한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반도체(SoC)를 접목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 정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메모리 위주의 불균형 성장과 장비·소재 분야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해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기술적으로 공정 미세화가 한계에 이르며 신소자·차세대 공정 등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내 대학·연구소의 반도체 원천 연구 및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11년째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중화권 기업의 추격 등의 어려움 속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의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패널 부품의 하나인 터치스크린은 대만·중국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알뜰한 나이스샷! 이마트 골프 PL 첫선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 자체브랜드(PL) '데이즈(Daiz) 골프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데이즈는 골프 클럽은 물론 기능성 골프웨어까지 전 품목을 일반 브랜드 상품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뉴시스

"민주당은 反기업? 오해 마시길"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이 반기업적 정서를 가졌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보,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책마다 대응 방안이 다를 뿐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게 아니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이 민주당을 기업 활동에 무조건 반족을 걸고 발목 잡는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화두인데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가계 소득은 계속 위축되고 있어 향후 내수 진작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두희기자 kim@

삼송 역세권 중소형 '삼송2차 아이파크' 분양완판 1분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고양,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던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하면, 적체됐던 미분양 아파트는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실제 고양 삼송지구 분양 아파트 가운데 현재 중소형을 공급하는 유일한 단지인 '삼송2차 아이파크'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74㎡B 타입은 이미 분양이 마감됐으며, 다른 타입 역시 마감이 임박했다. 신분당선 연장 계획 발표,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준공 예정(2017년) 인근 지역인 은평뉴타운 전세가 상승 등에 최근 계약이 급증하며 완판을 앞둔 상황이다.

삼송2차 아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체 1066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74㎡와 84㎡로 이뤄졌다. 중소형으로만 구성됐지만 최대 4베이 평면과 축구장 약 3배 규모의 오픈스페이스 등의 경쟁력을 갖췄다.

또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삼송역 개발도 계획돼 있다. 자광을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통일로를 이용할 수 있고, 원흥~강매 간 도로도 올해 8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권 및 여의도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산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단지 앞으로는 창릉천, 솔개천이 위치한다. 단지 내에는 자녀와 산책할 수 있는 600m 규모의 산책로가 조성되고, 단지 외곽에도 750m의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단지 곳곳에 마련된 녹지공간으로 마치 공원 같은 아파트를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유로운 생활을 좋아하는 수요자들은 중대형 단지인 삼송1차 아이파크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삼송지구 A-8블록 삼송1차 아이파크는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에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히 사라지는 등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삼송1차 아이파크는 바로 입주가 가능한 것은 물론, 파격적인 분양가로 매력을 더했다. 3.3㎡당 980만~1050만원 선으로, 전용면적 100㎡와 116㎡의 최소 입주금은 1억4000만원부터 시작된다. 계약금은 5%(2000만원대)이고 입주기간은 6개월이다.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중대형으로 이뤄졌지만 할인 혜택을 통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5번지(삼송2차 아이파크 현장)에 마련됐다. 주말마다 핸드 스킨케어 이벤트가 진행되고, 상담 고객은 선착순으로 와플팬트의 와플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기부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면 덕양구 소재 '사랑이 집 신예원'을 도울 수 있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이선옥기자

삼성전자 中모델에 '별그대' 커플

전지현-김수현 내세워 공략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전지현·김수현(사진)을 내세워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이들을 갤럭시 S5와 UHD TV, 냉장고 등 주요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는 중국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조회 건수만 25억 회를 넘는 등 최고의 한류 드라마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그대' 주역으로 최근 중국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이 나란히 중국 내 전속 모델로 활동해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전망이다.

박재순 중국 총괄 부사장은 "천송이·도민준 캐릭터로 중국을 매료시킨 전지현·김수현과 동반 모델 계약으로 제품 홍보는 물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친근하고 높아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상하이에서 열린 2014년형 커브드 UHD TV 출시 행사에서 세계 최대 105형 커브드 UHD TV와 다양한 크기의 UHD TV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 시장인 중국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정문경기자

잘 생긴 SKT "봄에 달립니다" SK텔레콤은 전국 주요 대학교, 주요 지역 축제 장소 등 관광 개소를 대상으로 LTE-A가 가능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자사가 운영 중인 이동 기지국 차량에 LTE-A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벚꽃 피는곳 LTE-A 팡팡

SKT 여의도·진해 등 꽃축제장 이동기지국 출동

봄을 맞아 SK텔레콤이 전국 축제 지역에 LTE-A 네트워크망을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여의도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 등 주요 축제 장소와 전국 386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LTE-A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자사 이동기지국 차량에도 LTE-A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존 800MHz 장비에 1.8MHz 장비를 추가하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했다.

다음달 본격적인 봄철 축제 시즌을 맞아 SK텔레콤은 축제 현장의 원활한 데이터 트래픽 처리를 위해 주요 축제 지역에 1.8GHz LTE-A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했다. 업그레이드된 이동기지국 차량은 전국 축제 지역에 배치돼 안정적인 통화 품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트래픽이 집중되는 순간에 용량을 긴급 지원해야 했지만 이제는 LTE-A 서비스가 제공되는 1.8GHz 대역까지 지원 처리가 가능해져 무선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향후 광대역 LTE-A 및 3밴드 LTE-A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이동기지국 업그레이드는 LTE-A망 구축이 전국망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형 단말기 보급 확대로 이동기지국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봉 SK텔레콤 네트워크 부문장은 "SK텔레콤이 진행 중인 LTE-A 전국망 구축 작업과 이동기지국 차량의 LTE-A망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뻥쳐도 합격되는 '스토리 채용'

구직자 24% 경험 과장

스토리 중심 채용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뻥튀기하는 구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뻥튀기하고도 서류전형에 통과한 사례가 많아 채용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573명을 대상으로 '취업 스토리를 과장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36.6%가 '취업을 위해서라면 스토리를 과장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24.6%는 이미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과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한 것으로는 '직무 관심과 입사 후 포부'(41.4%, 복수응답)가 첫 번째로 꼽혔다. '지원 회사 직무 관련 경험'(27.7%), '성장 배경'(25.5%), '리더십 성과 등 사례'(25.5%), '아르바이트 경험'(23.4%), '대학 시절'(19.1%), '가치관, 정의감'(17%), '동아리, 학회 등 교내외 활동'(14.9%) 등이 뒤를 이었다.

과장한 수준으로는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나 많이 달라진 수준'이 63.8%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 없이 꾸며낸 수준'(4.3%)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토리를 과장하고도 서류전형 등에 합격한 경우가 무려 74.5%에 달했다. 들킨 경험은 10.6%에 그쳤다. /이국명기자

LG디플, 기업 블로그 오픈

LG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소비자·취업 준비생, 고객사 등 다양한 고객과 친화하고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블로그와 동반성장 포털에 이어 기업 블로그를 오픈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다양한 기업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시장을 앞서가는 기술 선도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쌍방향,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김태균기자

"불법 보조금 중단…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통 3사 통신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일각선 "실효성 없다" 주장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이통 3사 공동 선언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기준(27만원)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유통망의 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 ▲시장 안정화 방안 실행력 제고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중 가능한 방안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행 ▲이통사 본연의 책무 실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 3사는 "오늘날 통신 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신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 영업 중단 ▲유통망에 대한 교육 강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 유통점에 대해 전산 차단을 통한 판매 중단 조치 ▲제조사와 협의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이통 3사의 통신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허울뿐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통 3사의 이번 발표는 마치 불법 보조금의 책임을 회피하며 영업점만 도둑으로 몰아넣은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영업점이 1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영업점으로 떨어지는 이익이 한 달에 2500원 수준이다. 대체로 20개월을 주기로 변경된다고 할 때 이익은 5만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영업점끼리 경쟁을 해봐야 5만원 이상 주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치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내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본사의 보조금 영업 정책이 원인"이라며 "이통사에서 오늘 발표한 약속만 잘 지키면 영업점에서도 건전한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사 측은 이통 3사의 출고가 인하 계획에 대해 전혀 제조사와 이야기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 이에 대한 이통사 측의 지원 역시 협의 단계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출고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겠나. 아직 이와 관련해 이통사로부터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윤원영(왼쪽)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가운데)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오른쪽) LG유플러스 MS본부장이 20일 공정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무전원 자동물내림 '베스트시트' 출시 친환경 절수 욕실 기업 베스트오토는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세계 유일의 무전원 자동 물 내림 변좌시트 신제품 '베스트시트'를 선보였다. 베스트시트는 인체 하중과 공기 흡입 방식만을 이용해 대·소변을 구별하고 자동으로 물을 내려주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없으며 최대 50%의 절수 효과까지 볼 수 있으며 레버를 직접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돼 위생성과 편리성이 있다. /연합뉴스

<기존 가입자>

"집토끼 지켜라"… 이통사 프로모션 경쟁

기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이동통신 3사의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순차적인 영업정지로 신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진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고객에게 눈을 돌린 것.

SK텔레콤은 20일부터 연말까지 T멤버십 할인 한도를 없애는 '무한 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우량 고객인 'VIP' 골드 등급 T멤버십 할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렸고, 실버 등급의 경우 할인 한도를 5만 점에서 6만 점으로 20% 늘렸다.

무한멤버십은 기존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고객은 롯데월드·메가박스·CGV·미스터피자·CU·빕스·뚜레쥬르 등 약 250여 개 T멤버십 제휴처에서 T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합 상품을 신청한 가족 구성원들은 멤버십 할인액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VIP 등급 고객은 연간 총 10만 점, 골드 등급은 연간 총 7만 점까지 가족에게 할인 한도를 선물할 수 있다. 할인 한도 선물은 고객센터와 T멤버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T는 올레클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66% 할인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롯데월드의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최대 66% 할인된 가격인 1만6000원에 제공한다. 해당 할인은 별도 차감 없이 하루에 한 번 이벤트 종료일까지 매일 이용 가능하다. 혜택 대상은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사 앱스토어인 올레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신 노트북, 자전거 및 스우디를 증정하는 '올레마켓 봄맞이 특별 이벤트'를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유료 결제 및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인터넷 및 결합 상품 상담을 위해 U+스퀘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세제 샤프란 1.6ℓ를 증정한다. 현재 영업정지 기간인 LG유플러스는 유선 서비스로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ya@

도그TV·여성 영화채널 아세요?

이색 방송 뭐가 있나

TV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과연 무엇을 봤을까. 불과 80여 년 전인 영국 BBC TV의 첫 방송은 점문 청소하기, 꽃에 물 주기 등 일상의 모습들로 채워졌다. 영화·토크쇼·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볼거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무엇을 보여줄까'라는 고민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이색적인 채널을 소개해본다.

CJ헬로비전은 애완견을 위한 채널 서비스 '도그(DOG)TV'를 지난달 시작했다. 이는 이스라엘, 미국에 이은 3번째다. 모든 나이대의 모든 종(種)의 견공들을 타깃으로 한 '도그TV'는 혼자 있는 견공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상과 소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아침부터 점·공원 등 시간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해 프로그램 순서를 견공의 실제 24시간과 일치시켜 일상생활 패턴을 꾸준히 노출시킨 점도 특징이다.

강아지가 애완견 채널 '도그TV'를 시청하고 있다. /CJ헬로비전 제공

'영어는 필수, 중국어는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주요 2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2030년엔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언어를 익히기 위해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채널칭(CHING)은 현대미디어에서 운영하는 드라마 전문 채널로 '삼국지' '대진제국' 등의 역사 드라마부터 '옹정황제의 여인' '포공전' 등 최신 무협드라마, 배우 이다해가 출연한 '사랑의 레시피' 같은 트렌드 드라마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올해에는 '수호지'와 '우츄 난릉왕'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만을 위한 영화 채널도 있다. 2010년 8월 개국한 씨네프가 주인공. 25세에서 49세 여성을 겨냥한 이 채널은 국내외 영화제 수상작, 유럽 영화, 제3세계 영화 등 다양하고 엄선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매달 이달을 대표하는 여배우를 선정해 그녀의 출연작을 모아 편성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3월의 여배우에는 '다우트' '줄리&줄리아' '마스터' 등에 출연한 에이미 애덤스가 이름을 올렸다.

/서승희기자 sshee@

볼때는 순정만화…하다보면 전투모드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린세스메이커, 아이러브파스타, 와라편의점

모바일게임 깜찍한 콘텐츠에 몰입도 높아 인기

봄바람이 창문을 노크하면서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이색 모바일게임이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의 대표 브랜드인 '아이러브커피'를 만든 파티게임즈는 최근 후속작 '아이러브파스타 for Kakao'를 출시했다.

신작은 파스타를 소재로 나만의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경영시뮬레이션 SNG다. '아이러브파스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옮겨놓은 듯한 게임 속 배경(선착장, 운하, 가게 뒤편 거리 등) ▲게임 속 주요 건물(2층 테라스) ▲게임 시스템(파스타 면 생산, 파스나 재료 구하기, 서빙하기 등)이 특징이며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했다.

기존 소셜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게임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입맛 게임 속 게임'으로 새로운 파스타 메뉴를 요리할 때 ▲같은 재료 짝찾기 게임 ▲요리 재료의 프라이팬 터치 게임 ▲신속한 서빙 리듬게임 등으로 신메뉴를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편의점'은 웹 SNG '와라편의점 for Kakao'도 요즘 '핫'한 게임이다.

동명의 인기 웹툰 '와라편의점'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손님의 동선이나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상품을 직접 주문하고 진열하는 등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어 네이버 소셜 앱 부문 넘버원 게임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편의점 매출을 놓고 친구와 경쟁하는 '대리 시스템'이 핵심 콘텐츠다.

게임포털 엠게임은 1990년대 명작 PC게임 '프린세스메이커'를 3D 기반으로 개발한 모바일게임 '프린세스메이커 for Kakao'를 다음달 출시한다.

원작과 같이 유서가 직접 아빠가 돼 딸을 성장시키는 기본 게임 방식에 SNG와 역할수행게임(RPG) 요소, 다양한 미니게임 및 엔딩 이미지 컬렉션 등이 더해졌다.

게임의 주요 시스템인 '엔딩 컬렉션'을 살펴보면 행동대장, 부포의 아내, 작가 등 다양한 직업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을 그린 카드를 한 곳에 모아놓은 '카드 컬렉션' 형태다. 각 카드에는 유저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 직업별 난이도 S~D등급과 별점이 매겨진다.

S등급 여왕, 장군, 왕비부터 D등급의 가사도우미,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직업별로 각기 다른 별점과 스토리가 담긴 219가의 엔딩 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딸과 동행하여 체력, 매력, 예술, 전투 기술 등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점검' 시스템도 재미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상훈 기자 csh@metroseoul.co.kr

LG트윈스 20년만에 우승?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 시뮬레이션 결과 눈길

LG 트윈스가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엔트리브소프트의 프로야구 매니저(pm.gametree.co.kr)가 29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우승팀으로 LG 트윈스를 점찍어 화제다.

20일 프로야구 매니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LG 트윈스는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막판까지 접전을 펼쳐 0.535의 승률로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류제국, 리오단, 우규민을 내세운 선발진과 이병규, 조쉬벨, 정성훈, 클린업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우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3년 연속 우승에 빛나는 삼성 라이온즈는 오승환의 자리를 대신한 안지만이 1점대 방어율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만 중간 계투 불안 때문에 승률 0.565로 아쉽게 1위를 놓칠 것으로 보인다.

거포 박병호를 내세워 무섭게 상위권을 노리는 넥센 히어로즈는 3위(0.54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로티노, 박병호, 강정호로 이어진 클린업이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며 1위를 노리지만 선발 투수진의 후반 난조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4위는 승률 0.508의 두산 베어스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와 홍성흔을 내세운 강력한 타선과 뒷문을 단단하게 잠근 이용찬을 앞세워 3년 연속 가을야구 티켓을 따낼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 NC 다이노스, SK 와이번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KIA 타이거즈는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 기자

좀 더 기다렸다 'X박스 원' 살까

9월 국내 출시 앞두고 소니 PS4 구매 고민중

게임 마니아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 'X박스 원'이 드디어 9월 한국에 상륙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상륙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PS4)도 조만간 공급이 안정화될 전망이어서 PS4를 사야 할지, X박스 원을 기다려야 할지 게이머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 시장에 내놓은 X박스 원을 오는 9월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미 등 26개국에서 추가로 선보인다.

X박스 360의 후속 모델인 X박스 원은 단순한 게임기에서 벗어나 가정용 멀티미디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은 물론 TV시청, 영화, 스카이프 화상 통화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작인식 기기인 키넥트를 통해 게임기를 구동하거나 음성 명령을 통해 각종 기능들을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X박스 원은 올해 초까지 306만 대가 넘게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PS4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출시 넉 달여 만에 600만 대가 판매되며 겪었던 공급 부족 현상이 오는 4월이면 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PS4에 탑재된 게임패드 '듀얼쇼크4'와 전용 카메라 'PS4 아이'의 재미를 맛보려는 게이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X박스 원과 PS4의 본격 맞대결이 시작되는 9월이면 그동안 침체됐던 비디오 게임기 시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기 성능으로 자웅을 겨루기 힘든 만큼 독점 타이틀 확보와 한글화 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국명 기자 kmlee@

액션 화려한 '가디언스톤' 글로벌 출격

NHN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대작 RPG '가디언스톤 for Kakao'가 글로벌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가디언스톤은 영웅들이 다양한 가디언들을 만나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턴제 방식의 게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이 특징이다.

여러 가디언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은 물론 상황 별 스킬을 조합해 전투 패턴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캐릭터들의 스킬 연계 시스템과 같은 차별적 요소로 기존 모바일 RPG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HN엔터는 20일 이 작품 공개와 동시에 사전 등록을 시작했고 4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내는 물론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차상훈 기자

롤' 리메이크 챔피언 2종

라이엇 게임즈의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리메이크된 챔피언 2종을 20일 공개했다.

먼저 '카서딘'은 암살자형 마법사 챔피언으로 강력한 침묵 효과와 함께 일방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특징을 가져 큰 인기를 얻어왔다.

기존의 경우 초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상대방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스킬 리메이크를 통해 상대편에게도 보다 넓은 대응의 여지를 주면서도 '마법사형 챔피언을 제압하는 기동성이 뛰어난 암살자'라는 본연의 콘셉트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차상훈 기자

관절질환·인대질환 5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관절 DNA 주사 '주목'

유명 남자 영화배우 C씨는 왼쪽 팔꿈치 및 무릎 인대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맞았으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자주 재발해 수술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로 C씨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만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를 통해 C씨를 치료했다. 또 이 원장은 특수 인대치료 주사를 병행했으며 치료 후 C씨의 상태는 호전됐다.

이처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에서 시행한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방법이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한 치료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C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유명해진 척추 및 관절 치료병원인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선행한다. 이후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체계화시켰다. 즉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비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 후 1대1 맞춤형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주(왼쪽) 강남초이스병원 원장과 배우 이종수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본원 외에 여의도역 및 홍대입구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굽반 분군(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와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를 합리적으로 돕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16-2200 /황재용기자

177년만에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개발

SGLT-2 억제제 계열의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국내 당뇨병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치료제와 다른 개념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를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시가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획득한 SGLT-2 억제제로 '다파글리플로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1835년 프랑스 화학자 피터슨(Petersen)이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해낸 플로리진이라는 성분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성분에 포도당 배출을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를 응용·발전시켜 177년 만에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한 것이다.

즉 다파글리플로진은 포도당 흡수에 관여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인 SGLT-2를 선택적-가역적으로 막아 남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 것. 또 하루에 280kcal 정도의 포도당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강하뿐만 아니라 체중과 혈압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혈당 강하와 함께 체중, 혈압 감소 효과가 있는 SGLT-2 억제제가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치료제와 달리 인슐린에 비의존적인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 다양한 병용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시가는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인슐린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시타글립틴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병용 요법 등으로 처방될 수 있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성조숙증 진단·치료법 강연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보건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장과 사춘기 발달 평가 및 관리'라는 주제로 성조숙증의 증상 및 진단, 치료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아이들의 성장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이를 의학적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으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주요 임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소아의 성장 장애, 사춘기 발달 이상, 갑상선 질환 및 당뇨병 등 주로 소아·청소년 호르몬 계통 이상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학회로 학회 회원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GSK 탈모제 한국남성에 효과

'아보다트' 3상 임상 화제

최근 글로벌 제약사 의약품 중 한국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임상시험이 추진되는 사례가 생겨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바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다.

아보다트는 GSK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두타스테리드'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탈모는 대체로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 두타스테리드는 이 호르몬 변화에 관여하는 5알파-환원 효소를 차단해 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아보다트의 3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먼저 진행된 것. 임상시험은 두타스테리드 0.5㎎ 투여군과 대조군인 위약 투여군의 비교 시험을 통해 진행됐는데 그 결과 두타스테리드가 환자 순응도가 우수했으며 탈모 진행을 늦추고 유의하게 머리카락 성장을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GSK는 이런 한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 대만을 위시한 5개 나라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2015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일본에서 가장 빠르게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기자

성분 따져 먹으면 군살 쏙쏙 빠져요

제지방 감소 돕는 각종 식품 추출물 눈길

꽃샘추위도 한풀 꺾이고 예년에 비해 유난히 빨리 온 봄을 맞이하기 위한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다. 따뜻한 봄날을 맞이 겨우내 불었던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함께 체지방을 줄이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한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제품부터 포만감을 증폭시키는 조제식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고 나섰다.

◆체지방 저장 방해하는 CLA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중 쓰고 남는 것은 간에서 다시 지방산으로 합성되며 신체 각 부위의 지방세포에 체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공액리놀렌산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방해해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녹차 추출물 역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기능성도 인정받았다.

◆탄수화물 섭취 많을 땐 HCA

평소 밀가루 등 탄수화물 섭취를 즐겨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을 섭취해볼 것을 권장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살찔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내장지방 빼주는 대두 배아

겉보기 체중일지라도 복부에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다. 복부는 특히나 지방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른 부위에 비해 빼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복부 지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대두 배아 추출물, 그린마테 추출물, L-카르니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것을 추천한다.

세 가지 기능성 원료 모두 복부지방을 포함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L-카르니틴의 경우 내장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식이섬유·히비스커스 등 복합 추출물이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량 이사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섭취 시 정해진 용법·용량 등을 지키는 등 안전한 섭취로 부작용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영기자 prme@metroseoul.co.kr

천장-핸들-시트-바닥 순 '쓱싹'

나들이철 자동차 청소 요령

자동차도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한 차 내부는 묵은 먼지와 퀴퀴한 냄새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랑 청소를 해야 한다.

자동차는 천장부터 핸들-시트 바닥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 쉽게 얼룩이 지고 담배연기와 매연 등으로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천장은 가볍게 먼지를 털어낸 다음 극세사 걸레를 이용해 살살 닦아준다. 천장은 힘을 줘 박박 닦으면 보풀이 일어나거나 주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시보드는 브러시나 칫솔을 이용해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내고 에어컨·히터의 송풍구는 마른 수건과 면봉으로 먼지를 제거한다. 히터를 사용할 때 악취가 난다면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커자를 끓여낸 물을 분무기에 담아 송풍구에 뿌려준 후 5분 정도 히터를 가동시켜 곰팡이를 제거한다.

시트는 소재에 따라 관리법이 조금씩 다른데 직물 시트는 먼지털이나 진공청소기로 수시로 관리하고 인조가죽 시트는 물에 중성세제를 희석해 마른 수건에 묻힌 후 가볍게 닦아준다. 천연가죽 시트 가죽 전용 클리닝 제품을 이용해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각종 먼지와 이물질 등이 쌓여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바닥 매트는 중성세제를 희석한 물로 닦아준 뒤 햇볕에 잘 말려준다.

/김혜은기자 hjune@metroseoul.co.kr

한섬이 만든 잡화브랜드 '덱케' 현대백화점그룹의 패션 전문 기업 한섬의 첫 잡화전문브랜드인 '덱케(DECKE)'는 20일 강남구 신사동 '덱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신상품을 선보였다. 독일어로 '지붕' 또는 '가죽'을 뜻하는 덱케는 가죽 소재가 디자인에 각각 프레스티지 라인, 밴티지 라인, 레이디 백 그 라인으로 구성됐다. 라인별로 '클러치' 상품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섬 제공

슈퍼푸드 넣은 '비피더스 시크릿'

석류·아사이베리 함유 2종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유산균 발효유 '비피더스'에 슈퍼푸드를 더한 신제품 '비피더스 시크릿'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 중 석류와 아사이베리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석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돼 여성들에게 좋고 미네랄·칼슘 등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며 면역력 및 지유력을 향상시킨다.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함유돼 노화 방지 및 유해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며 체내 독소를 제거해 피부 건강 및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또 비피더스 유산균 외에도 모유에서 발견된 세계 특허 유산균 '루테리'를 추가로 함유해 유산균 발효유 본연의 기능을 강화했다. 권장 소비자가는 4개입 4580원이다.

/정해인기자

모바일커머스 이러니 클 수밖에!

7조6000억 규모 시장 소비자 편의 진화 중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폭풍 성장'이 멈출 줄 모른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91.4% 성장한 7조 6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에는 모바일 쇼핑앱 전체 이용자 수가 총 2163만 명을 기록했다.

'엄지족'으로 불리는 모바일 고객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가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가 하면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을 활용해 각종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PC 웹 기반에서 차제 모바일 앱으로 옮겨가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반대로 모바일 앱 플랫폼부터 출시한 후에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역(逆)프로세스를 보이는 쇼핑몰도 등장했다.

소셜네트워킹커머스(SNC) 앱 티드(TID)는 모바일족이 가장 불편해한다는 제품의 상세 정보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제공한다. 사용률이 가장 많은 1대1.7 비율의 디바이스 화면에 맞춰 모든 상품 페이지를 자체 제작해 세부 정보의 이미지 왜곡의 가능성을 줄였으며 풀HD급 해상도를 지원하는 이미지 작업으로 선명하고 명확한 상품 확인을 도와준다.

11번가는 모바일 쇼핑 시 소비자가 갖는 데이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쇼핑족에게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프리' 서비스를 이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회원이면 모바일 앱과 웹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11번가에 접속할 때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보람기자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스킨케어 대세 '발효화장품'

자연·동양적 트렌드로 전세계 뷰티 시장 관심

올해 상반기 스킨케어 제품은 발효 화장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발효법은 자연적인 가공법의 하나로 화학적인 처리 과정 없이 자연 상태 원료의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면서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는 독소나 알레르기 물질은 제거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천연 원료를 발효하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통해 작은 크기로 미립자화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보다 흡수력이 높아진다.

특히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유효 성분들이 함께 추출되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각종 아미노산·젖산과 같은 물질 등 유효 성분의 함량이 증가돼 피부에 보습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발효 콘셉트의 브랜드 외에 다양한 뷰티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발효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율 BM팀 브랜드 매니저는 "최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동양의 원료의 투박하지만 자연적인 동양의 가공법이 전 세계 생활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에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원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자연 가공법 '발효'가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효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피부에 안전하거나 이로운 것은 아니다.

최동원 한율 한방 화장품 연구원은 "발효된 물질의 종류와 함량 등 피부에 적정량이 도포돼 자극은 없으면서 효능은 극대화되도록 연구·설계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제품에 피부과 테스트 완료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제품을 소량 테스트해본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은기자 hjung@

'윈도 웨딩'보다 품격·실속

예물·신혼집·혼수 트렌드

새봄을 맞아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다가왔다.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혼 예물과 신혼집 인테리어, 주방 용품세트 등의 내용을 알아본다.

먼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결혼 예물이다. 결혼 예물은 마음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증표이기에 결혼 의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최근 트렌드는 과거 보여주기식 예물에서 벗어나 예물의 상징성을 되찾고, 품격을 지키기 위한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르시아에서 나온 신제품 골드 매리지라인(Gold marriage line)의 경우 서로 다른 금속을 결합시켜 하나의 완전한 평면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결혼식 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신혼집이다. 최근엔 인테리어 DIY(Do It Yourself)가 시장에 자리하면서 신혼집 인테리어를 직접 즐기는 예비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직접 만든 소품부터 친환경 페인트 시공, 후에 미드 패브릭까지 다양하다.

특히 개성을 살리면서도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며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해 신혼부부들은 벽지 시공보다 친환경 페인트로 인테리어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초 에코마크 승인을 받은 조광페인트는 데커레이션 페인트인 제너레이션아트를 선보이며 무취·무독성 친환경과 함께 인테리어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주방용품세트에 대한 예비 신부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예물이나 예단을 간소화하는 대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주방용품에 집중하는 실속형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다. 과거 4·6인용 홈세트에 국한하지 않고 티팟이나 샌드위치 트레이 등 애프터눈 티세트 구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장병길기자 pass@metroseoul.co.kr

패션기업 F&F 이천 통합 물류센터 준공

패션 전문기업 F&F는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 지하 1층~지상 3층 총 7만6000㎡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F&F 이천 물류센터는 반품 자동 검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물류센터에 대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직원들이 쾌적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F&F는 서울 가산동과 안양 호계동에 물류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이천 물류센터 건축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양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연간 2200만 벌로 늘었다.

/김학철기자

한 병 220만원짜리 위스키 에드링턴코리아는 금세기 최고의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과 함께 만든 한정판 위스키 '맥캘란 마스터 오브 포토그라피 4 엘리엇 어윗 에디션(MOP4)'을 26일 국내에 판매 시작했다. 각 석굴 케스크별로 1136병이 한정 생산됐으며, 국내에는 단 10병만 판매된다. 소비자가격은 220만원이다.

/에드링턴코리아 제공

유니클로-프레상쥬 콜라보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톱 모델 출신의 프랑스 디자이너 '이네스 드 라 프레상쥬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21일부터 전국 유니클로 매장에서 판매한다.

2014년 봄·여름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총 70여 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쁘띠 파리지엔, 블루 블랑 파리지엔, 수플 드 파리지엔, 노트 파리지엔 등 4가지 라인을 통해 유니클로는 세련되면서도 시크한 프랑스 패션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스니커즈·로퍼만 신어도 '풋풋'한 멋

봄에 어울리는 신발 코디

올해는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1~3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녀 모두 봄맞이 야외 활동을 위한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있을 시기.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캐주얼룩에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남성의 경우 패턴이 들어간 스니커즈를, 여성은 깔끔한 로퍼로 봄철 캐주얼룩을 완성할 수 있다.

◆데님에도 어울리는 패턴 스니커즈

데님은 가벼우면서도 활용도가 좋아 봄 시즌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하기 편하다. 자칫 밋밋하기 쉬운 데님 패션에 컬러감이 돋보이거나 패턴이 곁들여진 신발을 매치하면 개성을 뽐낼 수 있다.

패턴 스니커즈는 모노톤의 의상에도 잘 어울린다. 특히 검정색이나 회색 등의 면바지에 패턴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살린 캐주얼룩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야상 재킷을 더하면 활동성이 돋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로퍼 하나로 캐주얼부터 슈트까지

최근 슬립온이 잇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로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로퍼는 캐주얼한 스타일은 물론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에서도 신을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모던한 도시 여성의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포인트 컬러가 더해진 로퍼가 좋다. 이번 봄 시즌에 주목받는 네온 컬러가 포인트로 가미된 로퍼는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주며, 특히 화이트와 네온 컬러가 어우러진 로퍼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윤희성기자 kehe0104@

"가수 겸업… 박명수 선배처럼 될래요"

데뷔앨범으로 화제 모은 개그맨 손헌수

스무 살의 나이에 정상에 오른 엘리트 개그맨이었던 손헌수(34)가 굴곡진 인생을 거쳐 멀티 엔터테이너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영화·뮤지컬을 섭렵한 만능 배우, 영화 연출·제작자, 심지어 "국내 최초 군대 두 번 간 연예인" 등 각종 타이틀을 보유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대중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데 탓"이라고 말하는 그가 노래하는 개그맨으로 '제2의 전성기'를 노린다.

◆두 번 군 입대는 싸이보다 선배

싸이가 월드스타로 부상하기 전 그를 화제의 중심에 몰고 간 사건은 두 차례 입대였다. 그러나 최초로 군대에 두 번 간 연예인은 손헌수다. 2007년 병역 산업체에서 대체 근무를 하던 중 싸이 등과 함께 검찰에 부실 근무자로 적발돼 재입대한 것이다.

"병역 산업체에 들어간 지 1년2개월째에 4주간 훈련소 생활을 하고 나와 나머지 대체 복무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떳떳해지고 싶어 입대를 결정했어요. 다시 훈련소에 들어가 23개월간 현역 육군 병사로 복무했죠. 싸이 형님만큼 화제가 되지 않는 점이 때론 서운하기도 하지만 당시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26세에 시작한 군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틈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하며 자신을 발전시켜갔다. 18세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데뷔하며 세웠던 '한국의 주성치'가 되겠다는 목표에 한발 다가갔다. 영화 공부를 했고 전역과 동시에 단편영화 제작에 들어갔다.

첫 작품인 단편 코믹 다큐 '동키는 살아있다'를 제작·연출·주연해 2010년 미쟝센단편영화제 희극지왕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최근까지 네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어 서울독립영화제 인디포럼 등에 초청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첫 장편영화에 도전합니다. '엄용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가을쯤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가수로 이유 있는 변신

여러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보여온 그가 가수 겸업을 선언했다. 행사를 위한 이벤트성 음원 발표가 아닌 이유 있는 변신이다. 2002년 '쥬빅스의 대모험'을 시작으로 '닭고나' '동키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대극장 무대에 올려진 뮤지컬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가수 전업을 제의받아온 그는 고민 끝에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다.

"이런 제의를 거절했던 건 제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박명수 선배님을 보면서 본연의 길을 가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얻었죠."

데뷔곡 '다녀오겠습니다'는 시카고 하우스풍의 리듬에 신나는 기타 플레이를 가미한 곡이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을 휩쓸었던 다프트펑크 스타일의 곡이다.

새로운 도전에 든든한 지원도 받았다. 박명수의 '제8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매니저인 정석권 대표가 그의 전속계약을 맺고 '제2의 박명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명수가 가수로 입지를 다지게 한 '바다의 왕자'를 만든 이주호 작곡가가 이 곡을 만들었다.

손헌수는 15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무대를 열었고, 기대에 부응하듯 귀에 박히는 멜로디와 포인트 안무로 단 번에 화제를 모았다.

"이번 앨범의 목표는 다음 앨범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이 곡으로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다녀오겠습니다' 멜로디 귀에 착
> 대중에 더 가까이 다가갈거에요
> 2번 군입대 등 굴곡진 인생 극복
> 신인 같은 마음으로 도전할 것

◆한국 간판 개그맨의 새 출발

2000년 데뷔와 동시에 MBC '코미디 하우스'의 코너 '허무개그'로 대박을 터뜨리며 약 1년간 국내 최고 인기 개그맨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MBC '연예대상'과 '한국방송대상'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휩쓸었고 10여 개의 CF 모델로 활약했다.

또 '야인시대'를 시작으로 7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누렸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성공을 맛보다 보니 연예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지금 제게는 어떤 부나 인기도 남아있지 않지만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대부분 제가 어떤 이력을 지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손현주의 눈빛 vs 조승우의 코믹

손 '쓰리데이즈'서 독기 품은 연기 호평 ‥ 조 구수한 사투리에 티격태격 모습 웃음 유발

연기파 배우 손현주(왼쪽 사진)와 조승우(오른쪽)가 차별화된 연기로 안방극장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SBS '추적자'와 MBC '마의'로 2012년 연기대상을 수상했고 올해 한 방송국 각기 다른 드라마의 주역으로 주중 내내 시청자들 만나고 있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서 대통령 이동휘로 열연 중인 손현주는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시청자 사이에선 이동휘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전이 있을 정도로 손현주는 의중을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다. 앞서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닮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배역을 설명했다.

눈빛 연기는 '쓰리데이즈' 첫 회부터 발휘됐다. 권력 위에 군림하고 살아가는 재벌 김도진(최원영)과의 밀회 장면에서 시청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동휘의 복잡한 심경이 눈빛 하나로 표현돼 궁금증을 자아낸 것이다. 또 지난 5회에선 김도진이 이동휘 암살 배후 조직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없을 게 없습니다"란 손현주의 대사는 독기를 품은 듯한 눈빛과 함께 복합적인 캐릭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조승우는 SBS 월화극 '신의 선물-14일'에서 구수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투박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조승우는 삼류 건달처럼 살고 있지만 과거 전설적인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반전의 인물 기동찬 역을 맡았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기동찬은 악하지도 건달도 아닌 다소 희한한 인물이다. 대본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될지 기대감에 이끌려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동찬에 질감을 불어넣은 건 완벽에 가까운 전라도 사투리다. 이는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스릴러 장르에 소소한 재미를 주고 야생 본능을 지닌 기동찬의 액션 연기와 함께 그를 매력적인 캐릭터로 시청자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게다가 노숙자로 위장한 재벌 주민우(신구)와의 티격태격 코믹 연기도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metroseoul.co.kr

리키 김 아들 태오 베이비 스타 예감

'슈퍼 베이비' 리키김 아들 태오(위 사진)가 신인 베이비 스타 등극을 예고했다.

19일 방송된 SBS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에는 이번주부터 새로 합류한 가족인 배우 리키김·류승주 부부와 딸 태린, 아들 태오군의 일상적인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아들 태오였다. 태오는 생후 11개월 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골격을 자랑하는 '슈퍼 베이비'였다. 계단을 어김없이 팔심으로 세면대까지 스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먹성도 남달라 음식을 혼자서도 남김없이 먹는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귀여운 외모까지 더해지자 태오의 사랑스러움은 배가됐다.

추성훈은 자신의 딸 추사랑(아래)과 함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후 각종 CF 모델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비슷한 포맷을 적용한 '오마베'가 리키김 아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성윤기자 ysa@

대세배우 모인 '닥터 이방인' 완벽한 신구조화 이룬 '빅맨'

새 월화드라마 내달 대결

'닥터 이방인'과 '빅맨'의 주연 캐스팅이 완료됨에 따라 SBS와 KBS의 월화극 대결 2라운드가 시작됐다.

SBS '닥터 이방인'은 '신의 선물-14일'의 후속작으로 다음달 28일 첫 방송 예정이다. 이종석·박해진·진세연·강소라 등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다. 작품은 남에서 태어나 북에서 자란 천재 의사 박훈(이종석)과 한국 최고의 엘리트 의사 한재준(박해진)이 남북 최대의 작전을 펼치는 메디컬 첩보 멜로로 '주군의 태양' '시티 헌터' '검사 프린세스' 등을 히트시킨 진혁 PD가 연출을 맡아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대세 배우의 공세에 KBS는 완벽한 신구의 조화를 꾀한 '빅맨'을 선보인다. 다음달 14일 KBS2 '태양은 가득히' 후속으로 방영될 '빅맨'은 강지환·이다희·최다니엘·정소민 외 한상진·차화연·송옥숙·권해효 등 묵직한 존재감을 지닌 배우들이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드라마는 고아로 태어나 밑바닥 인생을 살던 한 남자(강지환)가 재벌 그룹의 장남이라는 새 삶을 얻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권력과 부조리에 맞서는 내용을 짜릿하게 그릴 전망이다. 특히 주연 강지환은 첫 촬영장에서 "정말 살아 숨 쉬는 날연기에 초점을 맞췄다. 강지환이 아닌 캐릭터로 기억되는 배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전효진기자

이종석

강지환

최강 파이터 총출동

서두원 송가연등 '스타킹' 출연

대한민국 최강 파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2일 SBS '스타킹'에는 지난달 로드FC 경기에서 일본 선수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성공적인 격투기 선수 데뷔전을 치른 개그맨 윤형빈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녀 파이터 송가연(사진), 대한민국 대표 격투기 선수 서두원, 떠오르는 신예 파이터 손혜석 등 내로라하는 격투기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녹화 현장에 등장한 송가연은 아름다운 외모로 김종민, 제국의 아이들 광희, B1A4 산들과 진영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김종민은 송가연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접근했다가 초우리 한 방으로 제압당한 뒤 무대에서 퇴장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송가연은 남자 선수 못지않은 스파링 실력과 여성들을 위한 호신술을 선보였다. 또 탄탄한 몸매가 꾸기 방법도 모두 공개해 여성 방청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MC 강호동은 천하장사 출신다운 강력한 펀치를 휘둘렀지만 어리바리 대명사 김종민에게 한참 뒤지지는 점수를 기록해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유인영 '별바라기' 게스트

배우 유인영(사진)이 MBC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별바라기'를 통해 예능 나들이에 나선다.

19일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드라마 '기황후'와 '별에서 온 그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인영은 '별바라기'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강호동이 MC로 나서 다음달 방영 예정인 '별바라기'는 팬들을 통해 스타의 새로운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형식의 토크 프로그램이다.

유인영 외에 인피니트 등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한성윤기자

전국 춤꾼 찾아나선 '댄싱9'

엠넷의 '댄싱9'(사진)이 두 번째 시즌의 포문을 열었다.

'댄싱9'은 지난 15일 서울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광주, 30일 부산, 다음달 5일 서울지역 2차 예선을 통해 전국 각지에 숨은 춤꾼 찾기에 나선다.

서울지역 예선 현장에는 지난 시즌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한 가운데 외국인 비중도 크게 늘었다. 한 외국인 여성 참가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며 "K-팝을 좋아한다"고 밝힌 뒤 엑소의 '으르렁' 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뉴질랜드에서 온 쌍둥이 형제 역시 K-팝 댄스를 선보여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어린이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은 한국 무용, 스트리트 댄스,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K-팝 댄스는 물론 유지컬 댄스, 테크토닉, 내용골 전통춤, 나이트댄스 등 여러 장르의 춤으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 지난 시즌 참가자 김솔희, 이루다, 이준용, 하은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윤은석, 서영모가 속한 그룹 몬스터즈는 신곡 '엘레리 꿀레리'를 최초로 공개하며 '댄싱9' 의리를 과시했다.

한편 지난 시즌 블루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했던 비보이 하휘동이 이번 시즌부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지민 기자 language@

SM '역외탈세 스캔들'

국세청 인력 수십명 투입 조사… SM "정기 세무조사일 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SM이 해외 수익금 등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반면 SM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세청과 SM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강남구 SM 본사에 수십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연예기획사 업계에서는 SM 측이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M 이수만 대표

이에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역외 탈세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지난 2009년에 이어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추측 보도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SM이 밝힌 정기 법인 조사는 과세 표준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경우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결과 SM의 조세포탈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연예계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또 다른 유명 연예기획사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긴장하고 있다.

한편 SM은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등의 스타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으며 한류 열풍을 주도해왔다.

/탐현준기자 sjw@metroseoul.co.kr

DJ DOC '호텔킹' 깜짝 출연

그룹 DJ DOC가 MBC 새 주말극 '호텔킹'에 깜짝 등장한다.

20일 제작진에 따르면 DJ DOC는 최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된 '호텔킹' 촬영에서 실내 워터파크를 배경으로 한 화끈한 콘서트 장면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이날 촬영은 극중 차재완(이동욱, 사진 가운데)이 주최하는 씨엘호텔의 수영장 콘서트 장면으로 화려한 LED 조명과 세트, 보조 출연자들이 대규모로 동원됐다.

이날 보조금 출연자들 사이로 무대에 등장한 DJ DOC는 실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댄스와 무대 매너로 촬영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제작진은 이번 DJ DOC 출연에 대해 "이번 콘서트 장면은 조은정 작가가 직접 DJ DOC 콘서트를 보고 영감을 얻은 장면으로 제작진이 헬리캠을 동원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방송을 통해 보면 알 것"이라며 "DJ DOC 역시 세 멤버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처음이라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 첫 방송될 '호텔킹'은 국내 유일의 7성급 호텔인 씨엘호텔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속녀와 그를 위해 아버지와 적이 된 총지배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동욱, 이다해, 왕지혜, 엄슬용, 김해숙, 이덕화 등이 출연한다. /황성운기자

엠블랙 "절제된 섹시미 보여주마"

'남자답게' 영상 공개

그룹 엠블랙(사진)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엠블랙은 20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브로큰'의 타이틀곡 '남자답게' 티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 티저 영상은 앞서 공개됐던 콘셉트 이미지와 수록곡 '우리사이'의 티저 영상보다 돋보이는 엠블랙만의 절제된 섹시미를 담고 있어 컴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영상에서는 모노톤의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색채와 멤버들의 감성 연기가 앨범명 '브로큰'처럼 이별에 깨진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다.

'남자답게'는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의 곡으로 이별을 느끼며 남자다운 우게감과 애절한 본심 사이에서 아프게 고민하는 모습을 담았다. 엠블랙은 24일 쇼케이스 개최와 함께 '브로큰'의 음원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김실모기자

이승환 '너에게만 반응해' 뮤비 티저 선보여

발라드 황제 이승환(사진)이 열한 번째 정규앨범 '폴 투 플라이'의 타이틀곡 '너에게만 반응해'로 돌아온다.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이세영이 출연한 '너에게만 반응해'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곡은 이승환이 지난 2년 동안 공연에서 종종 부르기도 했던 노래로 작곡가 황성제와 돈스파이크가 브라스 편곡에 참여했다.

브라스 사운드가 인상 깊은 곡이다.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와 재치 넘치는 가사,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 등으로 올봄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가수 이소은이 피처링에 참여해 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 17일 공개한 '내게만 일어나는 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11집 활동에 들어갔으며 정식 앨범 발매일은 26일이다. /정덕현기자

'쓰리데이즈' 뜨니 OST도 뜨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가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OST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가수 거미(사진)가 부른 '쓰리데이즈' OST '날 부르네요' 음원이 19일 공개 이후 음원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곡은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서정적인 가사와 거미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어우러졌다.

신곡 '흔한 노래'로 돌아온 가수 겸 배우 임창정도 엉뚝이 OST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지난달 26일 정오에 공개된 '쓰리데이즈' 첫 번째 OST '굿바이'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겨울사랑', 임창정의 '나란 놈이란'을 히트시킨 작곡가 백민혁과 유한종이 의기투합해 만든 노래다. 화려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임창정의 감성적 보이스가 어우러져 가슴 깊은 전율을 전하고 있다.

한편 임창정의 신곡 '흔한 노래'는 국내 10대 음악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모두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임창정은 20일 엠넷 '엠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정규 12집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전효진기자

충무로 신인 여배우 3인 '치명적 매력'

충무로에 샛별들이 떠오르고 있다.

'인간중독'(5월 개봉)의 임지연, '가시'(다음달 10일 개봉)의 조보아, '마담 뺑덕'(하반기 개봉)의 이솜 등 대중에게 낯선 얼굴의 여배우들이 각각 미남 톱 배우들인 송승헌·장혁·정우성의 상대역으로 나서 파격적인 노출을 펼친다고 알려지면서 영화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임지연은 '인간중독'에서 1960년대 말 군 대위인 남편의 상사 김진평(송승헌)과 불륜에 빠지는 종가흔 역을 맡아 치명적인 매력을 스크린에 펼쳐낸다.

여배우를 발견해내는 귀재로 정평이 나 있는 김대우 감독에게 발탁된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으로 연극 '다시 드리밭' '배우' 등을 통해 연기력을 가다듬었다. 1990년생으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이목구비와 분위기를 갖춰 중국 톱 여배우 탕웨이를 연상하게 한다.

조보아는 '가시'에서 기혼인 체육교사 준기(장혁)를 향해 광기에 가까운 사랑과 집착을 보이는 소녀 영은 역을 연기한다.

1991년생으로 '제시카 히미연' 등 톱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가나초콜릿 CF 모델로 활약하며 주목받았으며, 신민아·이연희 등을 발굴한 김태균 감독의 오디션에서 25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을 따냈다. 큰 눈과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연상시킨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솜은 '마담 뺑덕'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지방으로 좌천된 교수 심학규(정우성)를 향해 모든 것을 건 사랑을 하지만 버림받은 후 그를 파멸로 몰아가는 여자 덕이로 분했다.

인기 모델 출신으로 2010년 영화 '맛있는 인생'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고 이후 영화 '더 엑스' '푸른소금', 드라마 '유령' 등에 출연했다. 1990년생인 그는 173cm의 큰 키와 '베이비 페이스'가 매력 포인트다.

지난 몇 년간 신인 여배우 기근을 겪었던 충무로는 새로운 스타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2012년 영화 '은교'에 은교 역으로 캐스팅된 신인 김고은이 박해일과 파격적인 베드신을 펼친 후 각종 신인상을 휩쓸며 스타덤에 오른 이후 걸출한 신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감독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여배우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기존 톱 여배우들도 많지만 신인이라도 조금 더 시나리오에 적합한 배우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언혁기자 ...@metroseoul.co.kr

'인간중독' 임지연 불륜녀 열연

'가시' 조보아 광기 넘치는 사랑

'마담 뺑덕' 이솜 팜므파탈 면모

유재석 대형기획사 가나

유재석(사진)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영입을 제안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대형 기획사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민이 크다"며 "혼자 있는 게 장점도 크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고 기획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현재 그는 2011년 소속사 DY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후 JS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10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매니저와 함께 일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 매체에 의해 YG엔터테인먼트 영입설이 제기됐지만 양측 모두 부인하며 유재석의 걸쌍지 신동엽·강호동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와의 MC 대결 구도가 일단 보류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유재석은 SM엔터테인먼트 영입설이 나돌기도 했다.

/권혁기기자 ...

개그맨 이상화 백년가약 예비신부는 띠동갑 제자

다음달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는 개그맨들의 핑크빛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이상화(사진 왼쪽)는 다음달 5일 서울 상암동 DMC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이상화보다 열두 살 어린 스물아홉 살의 서모씨로 빌리댄스 안무가 및 문화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이상화는 2013년 교수로 재직 중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과에서 제자로 만난 서씨와 호감을 느껴 사제지간, 나이 차라는 벽을 허물고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외국인 노동자 캐릭터 '블랑카'로 유명한 개그맨 정철규는 동갑내기 일반인과 다음달 26일 토요일 KBS 신관에서 결혼한다. 사회는 개그맨 조세호가 맡을 예정이다.

개그맨 곽한구도 같은 날 품절남이 된다. 서울 여의도 KBS 웨딩홀에서 세 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장성은기자

뮤지컬커플 '박·문' 결혼도 뮤지컬처럼

24일 홍대클럽서 식 올려

뮤지컬 커플 박태성(사진 왼쪽)·문혜원(오른쪽)이 24일 콘서트 형식으로 결혼식을 치른다.

20일 소속사 대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 홍대 클럽 브이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은 일반 웨딩홀이 아닌 콘서트 무대에서 색다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문혜원의 파항 시절 소원으로 인해 이뤄졌다. 문혜원은 과거 고등학생 때부터 콘서트 형식의 결혼식을 상상해왔다. 박태성은 문혜원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색 결혼식을 준비했다.

결혼식은 신랑·신부의 입장부터 시작해 잘 알려진 노래를 개사해 만든 주례, 익숙한 가요 메들리로 꾸며진 혼인서약 등 모든 순서를 한 편의 유지컬 공연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료 뮤지컬 배우들의 개성 넘치는 축가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박태성은 tvN '롤러코스터', MBC '미워', SBS '바람다운 그대에게'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는 뮤지컬 '정글라이프'에 출연 중이다. 문혜원은 모던록 밴드 '뷰렛'의 보컬이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헤드윅' '대장금'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이다. 현재 뮤지컬 '서편제'에서 미니 역을 맡았다.

/장성은기자 ...

이범수, 최민식·설경구와 한지붕

배우 이범수(사진)가 최민식·설경구 등과 한 식구가 됐다.

20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와 영화 모두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이범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연기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는 지난 1990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로 데뷔해 스크린에서 활동해오다가 2007년 SBS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로 SBS 연기대상 3관왕을 차지했었다. 이후 SBS 드라마 '온에어' '자이언트'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총 3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를 가지며 배우의 내공을 쌓았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는 최민식·설경구·이정재·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박성웅·류도원·남하청·송지효·송새벽·정선아·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이범수는 MBC 월화극 '기황후' 후속작 '트라이앵글(가제)' 출연을 확정 지었다.

/장성은기자

날씨

3/21 金 일출 06 35 일몰 18 44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면 식습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 치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5				2	1
		2	9		1		4	
		6			4		5	
	3	7				4		
			8		2			
		8				3	9	
	7		3			1		
	2		1		8	5		
1	8				5			4

			1		7			
3			6		2			5
		7	3				8	
	5					9	2	
4		9	8	1	5	6		7
	7	3					5	
	3				8	1		
1			5		4			9
			7		1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봇뉴스

영사 스도쿠 라이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페네데스의 카바(CAVA)

조민주의 와인스토리

바르셀로나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로 '꽃보다 할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는 프랑스와의 경계를 이루는 피레네산맥을 머리에 이고 지중해에 접한 카탈루냐의 주도다. 각종 예술의 전시회 개최지로도 유명하다.

카탈루냐주는 화가 살바도르 달리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등을 배출한 스페인의 문화 중심지다. 동시에 와인 산업에서도 의미가 깊은 곳이다. 기원전 7세기경 페니키아인으로부터 전파되었다고 전해지니 스페인 와인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카탈루냐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페네데스는 바르셀로나에 인접해 있으며 세계적으로 프랑스 샹파뉴의 샴페인과 어깨를 견주는 명품 스파클링 와인 카바의 주 생산지다. 샴페인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그리 떨어지지 않는 와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샴페인과 카바는 제조 방법이 같다. 소위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 샴페인 방식을 사용한다. 스파클링 와인 제조는 그밖에 탱크 발효와 탄산가스 주입 방식이 있는데 이들과의 차이는 1차 발효 뒤 후 병입하여 2차 발효를 병 속에서 한다는 점이다.

병 속에서의 2차 발효가 어떤 점에서 다른 스파클링 와인과 차별화될까. 비밀은 병 속에서 발효를 일으키는 효모에 있다. 효모가 발효를 일으킨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효모의 찌꺼기(리 라고 한다)가 남아 와인의 맛에 깊이를 더하고 효모 특유의 향을 남긴다. 일반 스파클링 와인에 비해 칼 같은 산미는 덜하지만 우아함이 보장된다. 카바는 샴페인에 비해 산미와 꽃 향, 과일 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포도 품종이다. 샴페인은 레드 품종인 피노 누아, 화이트 품종인 피노 뮈니에 및 샤르도네를 사용한다. 화이트 품종만 쓰기도 하고 레드 품종과 블렌딩하기도 한다. 카바는 화이트 품종으로만 만든다. 카바는 토착 품종인 마카베오, 파렐라다, 샤렐로 등 3종이 주로 쓰인다.

제조 방법은 같으나 여러 가지로 다른 카바 와인은 이른 봄이 제철인 주꾸미 데침과 궁합이 맞는 와인으로 추천할 만하다.

[illegible]@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중년까지도 안정적 직업 없어 하늘에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해바라기 남자 53세 11월생

Q 메트로신문에서 '사주 속으로'를 보는 이유는 상담 의뢰 올리운 사람들의 사연이 인생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소설을 읽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나의 사연과 너무 비슷해 놀라기도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아직도 안정적인 직업이나 직장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뭘 해야 하는지요.

A 삼국지에 제갈량이 있습니다. 기문(奇門)의 고수였던 그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를 7일간 올렸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제갈량이 기도를 올린 것은 적벽대전에서였습니다. 조조 진영의 함선들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는 연환계를 쓰는데 결정적 화공에 필요한 동남풍이 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택과를 이용해서 칠성단을 쌓고 목욕을 한 다음 흰옷을 입고 기도를 하여 동남풍이 불게 하여 조조를 물리쳤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평생 되는 일이 없었다면 생년월일을 적어놓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늘에 마음을 전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해보십시오.

고향에 있는 땅을 사려는데 재물 운 하향길 사면 후회

hynin 남자 63년 5월 17일 음력 [illegible]

Q 지인의 권유로 강원도 쪽에 땅을 사려다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저의 시골 동네에 작은 구릉지가 나왔는데 그걸 사면 어떻는지요? 땅을 사면 돈이 한동안 잠기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는 현실에서 뭔가를 투자하기도 겁납니다.

A 천주귀인(天廚貴人)이 있어 들판에 먹을 것이 많이 뛰어다니는 닭의 형상으로 한상 분주하고 식록이 두둑합니다만 생일지(태어난 날)에 [illegible]은 여전히 강합니다. 인수(印綬) 나를 생해주는 오행의 천을귀인(하늘의 도움)이 있어 지난 시절 문서에 유리한 점이 있었으나 작년 2013년부터는 투자운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자유(字面) 귀문살이 있어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땅 투자에 구미가 당기게 한 것인데 계약운은 있으니 호자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은 재물운이 하향 길을 가고 있어 땅을 사놓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겠다거나 번다는 생각도 접고 있는 돈 한 번 토막 내서 헛돈 내지 말고 쓸 데 있으면 쓰다가 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1일(음력 2월 2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힘로 인한 실수 조심. 60년생 원하던 방향으로 일은 생긴다. 72년생 운기가 별로이나 당분간 자중하라. 84년생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격이다.

소 49년생 집안에 훈바람이 부는 형국이다. 61년생 유실수 있으니 귀중품 조심~. 73년생 초심을 잃으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85년생 어려울 땐 클럭으로 물어라.

호랑이 50년생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라. 62년생 분주하나 소득은 별로다. 74년생 나를 찍어 물러날 때 잘 구분할 것. 86년생 자신감과 용기가 곡인해 거침이 없다.

토끼 51년생 서두르면 후회를 일 만든다. 63년생 구름 속의 달이 화려한 외출~. 75년생 요란한 사람일수록 실속이 없다. 87년생 시시한 일에 해달려 에너지 낭비 마라.

용 52년생 운동 땐 낙상서고 조심~. 64년생 서쪽으로 출행하면 웃을 일 생긴다. 76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88년생 허왔던 공은 훨리 전는 게 이롭다.

뱀 53년생 남쪽으로 가면 웃을 일 생긴다. 65년생 문서 일은 재검토할 것. 77년생 자랑을 경사기 생겨 즐겁다. 89년생 말이 꽃히는 이성과 마주하니 가슴이 콩콩~.

말 42년생 물이 자연되니 대비하라. 54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대범이면 잊히니 사소한 실수로 난리 치지 마라. 78년생 궁하면 톡하는 법이다.

양 43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 즐겁다. 55년생 스포츠키기 질주하는 형국~. 67년생 계획대로 움직이면 어려움은 없다. 79년생 오늘은 고전해도 내일은 좋으니 좌절하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마음의 병을 잘 다스려라. 56년생 뜻대로 다 되는 인생은 없다. 68년생 자영업자는 과욕 말고 현상 유지할 것. 80년생 운기가 활짝 열려 막힘이 없다.

닭 45년생 근심은 사라져 편안하다. 57년생 어려움은 있으니 변수 조심~. 69년생 자신을 이겨야 남을 이길 수 있다. 81년생 생각지도 않은 복을 신경 써라.

개 46년생 번잡지기 기분 좋게 하는구나. 58년생 과거에 집착하면 전진 못 한다. 70년생 영업사원은 희망차고 보람찬 하루~. 82년생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 마라.

돼지 47년생 성급한 판단은 후회만 남긴다. 59년생 욕하는 성질 좀 자제하라. 71년생 문서 일은 재검토 필요하다. 83년생 불리하다고 말을 바꾸지 마라.

KT 4강…"LG 나와라"

송영진 16점·파틸로 22점… 전자랜드 추격 따돌려

프로농구 부산 KT가 인천 전자랜드를 제치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KT는 20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6강 플레이오프 원정 5차전에서 79-57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3승2패를 거둔 KT는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놓고 창원 LG와 겨루게 됐다.

이날 경기에선 베테랑 송영진이 3점포 3발을 포함해 16점을 몰아쳤고 외국인 선수 후안 파틸로도 운동능력을 뽐내며 22점 8리바운드를 작성했다.

특히 이날 경기는 총력전이 예고된 만큼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기 흐름은 초반 둘출 변수 때문에 KT쪽으로 기울어졌다. 전자랜드 공수의 핵심 요원인 정영삼이 1쿼터 종료 6분여를 남기고 오른 다리를 다쳐 벤치로 들어간 것.

이후 KT는 전자랜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1쿼터를 20-16으로 마친 뒤 전자랜드를 2쿼터 6분여 동안 무득점으로 묶고 조성민·전태풍·파틸로·민성주·김현중이 16점을 연속으로 합작해 점수 차를 20점 차로 벌렸다.

전자랜드는 2쿼터 7분 30초만에 이현호의 점프슛이 림을 통과해 긴 침묵에서 깨어났지만 KT의 파틸로와 송영진이 각각 앨리웁 덩크와 클러치 3점포를 터뜨려 전자랜드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효진기자 sssth@metroseoul.co.kr

프로농구 PO 전적 20일

KT	20	19	21	19	79
전자랜드	16	6	15	20	57
신한은행	15	18	27	17	77
국민은행	17	20	19	18	74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5차전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에서 KT 송영진이 슛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민 결국 마이너행

ML 두번째 등판 1실점

미국프로야구로 직행한 윤석민(28·볼티모어 오리올스 사진)이 결국 마이너리그에서 정규리그 개막을 맞게 됐다.

볼티모어 구단은 20일 "우완 투수 윤석민을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윤석민은 이날 2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등판에서 첫 실점도 허용했다.

윤석민은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 5회 구원 등판, 2이닝 동안 1실점했다. 안타를 하나씩에 맞지 않았지만 그 안타가 솔로홈런이었다. 윤석민은 2경기 3이닝 1실점(평균자책점 3.00), 1승 무패로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피안타는 2개였고 탈삼진은 1개, 볼넷은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볼티모어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 뒤 윤석민과 포수 조니 모넬(28)의 트리플A행을 공식 발표했다.

윤석민은 볼티모어와 3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조건상 첫해인 올해에는 마이너리그행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취업비자 발급 지체로 시범경기 데뷔가 늦어진 탓에 정규리그 개막 전에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는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시속 150㎞를 넘겨야 할 직구 구속도 아직까지는 최고 145㎞에 불과한 상태다.

윤석민은 볼티모어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내 현주소"라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등판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벅 쇼월터 감독은 "적절한 시점에 윤석민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기자 ysw@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로빈 판 페르시가 웨인 루니의 크로스를 받아 두 번째 골을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체면 지킨 맨유

판 페르시 해트트릭… 올림피아코스 꺾어 UEFA 챔피언스리그 극적으로 8강 진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맨유)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이 팀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리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켰다.

맨유는 20일 홈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올림피아코스 FC를 3-0으로 따돌리고 1, 2차전 합계 골 득실에서 앞서 8강에 올랐다.

1차전 원정에서 졸전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0-2로 패했던 터라 2차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예측이 많았지만 '골잡이' 로빈 판 페르시가 해트트릭으로 맨유와 모이스 감독을 구해냈다.

이날 경기 전까지는 만약 맨유가 2차전까지 패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다면 모이스 감독 역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맨유의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명장'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뒤를 이어 모이스 감독이 부임한 이후 맨유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현재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승6무9패로 7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이스 감독은 "맨유는 장기적 비전이 있는 팀"이라며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발언은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벼랑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맨유와 모이스 감독은 최후의 보루 챔피언스리그에서 생존에 성공하며 마지막 기회를 향한 끈을 유지했다.

8강전 대진은 오는 21일 추첨으로 정하며, 경기는 내달 1일부터 열린다. /이범훈기자

메시 vs 호날두… 누구 창이 셀까

24일 '엘 클라시코'

메시 호날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 사진)와 리오넬 메시(왼쪽)가 격돌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24일 오전 5시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으로 FC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여 2013~2014 프리메라리가 29라운드를 치른다.

스페인 리그를 대표하는 양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70을 기록, 3위 바르셀로나(승점 66)를 따돌리고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무게 중심에는 호날두가 서 있다. 호날두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4경기에 나와 25골을 올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메시는 이번 경기를 통해 엘 클라시코 최다 득점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2007년부터 엘 클라시코에 출전한 메시는 엘 클라시코에서 26경기에 출전, 18골을 올렸다.

1950~60년대 활동한 레알 마드리드 스타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아르헨티나)와 엘 클라시코 최다 득점에 어깨를 나란히 한 상태다.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한 골이라도 터뜨린다면 메시는 엘 클라시코의 역사를 새로 장식할 수 있다. /김성준기자

이상화·박승희 여성스포츠대상 1·2월 MVP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25·서울시청)와 박승희(22·화성시청)가 여성스포츠대상 1~2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여성스포츠대상 심사위원회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상화와 박승희를 1~2월 통합 MVP로 뽑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상화는 소치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 마시아 빙속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승희는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3000m 계주에서 정상에 올랐고, 500m에서는 두 번 넘어지는 불운에도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아 1998년 나가노 대회의 전이경 이후 16년 만에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정성운기자

프로배구 PO 1차전 20일

OK저축	3	0	한국전력